

“이제 내일은 없다...오늘 웃어야 준PO 간다”

KIA, 오늘 LG와 정규시즌 최종전...3위 놓고 '마지막 승부'

3위 고지 눈앞에 두고 홈 롯데戰 뼈아픈 만루포에 와르크 양현종 선발 특명...‘승리·무승부 3위, 패하면 14일 WC戰



KIA 타이거즈가 3위 확정 기회를 놓쳤다. 이제 남은 건 LG 트윈스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다.

KIA는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1-4로 졌다.

이날 승리했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3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롯데에 패하면서 4위 LG와의 격차는 0.5경기로 좁혀졌다.

선발 올리는 5%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투구 수는 96개였고, 삼진 5개를 잡았다.

KIA 타선도 6안타에 그쳤다.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1회말 2사 1·3루에서 후속 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났다. 4회말에도 2사 1·3루에서 이중도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3루 주자가 태그아웃되면서 공격이 끝났다.

두 차례 기회를 놓친 KIA는 6회초 한 번에 4점을 내줬다.

2사 이후 연속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만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한동희에게 중월 만루홈런을 허용했다. 순식간에 0-4로 끌려갔다.

KIA는 좀처럼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9회말 카스트로와 나성범의 연속 안타로 1사 1·3루 기회를 만들었다. 김선빈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한 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날 SSG와의 홈 경기에서 홈런 4방을 앞세워 8-5로 승리한 KIA는 이날 패배로 순위 경쟁을 최종전으로 미뤘다.

KIA는 7승 6패 2무, 승률 0.533이다. LG는 7승 6패 1무로 승률 0.549다. 두 팀 모두 시즌 한 경기만 남았다.

KIA는 '대투수'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운다. LG는 리그 다승 공동 1위 임창규를 예고했다.



“우리가 타이거즈의 미래”

1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2027 신인선수 입단식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하는 아기 호랑이들이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가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3위를 확정한다.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에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가을야구를 시작한다.

반면 패하면 4위로 내려앉는다.

이 경우 14일부터 5위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한다. 4위 팀은 1승 또는 1무만 거둬

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5위 팀은 2승을 해야 한다.

KIA는 2024년 통합우승 이후 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복귀한다. 그러나 가을야구의 출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홈런왕 경쟁도 최종전에서 결판난다.

김도영과 힐리어드(KT)는 나란히 44홈런으로 공동 선두다. 힐리어드는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삼성전에서 43, 44호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김도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두 선수 모두 12일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홈런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29경기만에 무승 끝났다



바 루아, 2골 2도움 ‘맹활약’...난타전 끝 울산 HD에 4대3 승리

K리그1 최하위 광주FC가 리그 2위 울산HD를 꺾고 29경기 만에 승전고를 올렸다.

광주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 K리그1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3 승리를 거뒀다.

지난 3월7일 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3-2) 이후 28경기에서 12무 16패로 최다 무승 기록을 써내려간 광주는 이날 길었던 무승 사슬을 끊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투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바 루아와 아이데일이 각각 2골과 1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리그 우승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 울산과 무승 탈출에 사활을 건 광주는 초반부터 공격축구로 맞섰다.

주도권을 잡은 광주는 전반 22분 바 루아가 신장무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했으나 오프사이드였다.

득점 기회를 날린 광주는 전반 31분 야고의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기세가 꺾이는 듯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광주는 연속골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역전을 이뤄냈다.

바 루아가 전반 35분 왼 측면에서 온 하승운의 패스를 왼발 논스톱 슈트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탄 바 루아는 3분 뒤 왼 측면에서 크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광주FC 아이데일(왼쪽)과 2골 2도움 맹활약을 펼친 바 루아. <광주FC 제공>

로스를 올렸고, 반대편에 있던 아이데일은 헤더로 밀어 넣으며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동경 크로스에 의한 김영권의 헤더로 동점골을 내주며 전반을 2대2로 마무리했다.

광주는 후반 초반 울산의 공세에 밀려 주춤했다.

후반 18분 하승운을 빼고 문민서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고, 2분 뒤 추가골에 성공했다. 역습

기회에서 신장무가 바 루아의 침투 패스를 받아 조현우를 제치고 가볍게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광주는 후반 31분 승리에 한 발 다가서는 추가골을 기록했다. 바 루아가 왼 측면에서 오는 이민기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신고했다.

후반 추가시간 야고에게 페널티 킥으로 실점을 허용했으나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며 4-3 승리로 마무리했다. /박희중 기자

‘씨름 괴물’ 김민재, ‘씨름 황제’ 이만기 넘어섰다



11일 열린 2026 괴산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 <대한씨름협회 제공>

통산 19번째 백두장사 등극

‘씨름 괴물’ 김민재(24·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개인 통산 19번째 백두장사에 올라 ‘씨름 황제’ 이만기를 넘어섰다.

김민재는 11일 열린 위너스제약 2026 괴산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장사 결정전(5판 3승제)에서 마권수(문경시청)를 3-0으로 제압했다.

결정전 첫판에서 김민재는 잡채기로 기선을 제압한 후 둘째 판에서도 밀어치기를 성공했다. 이어 세 번째 판에선 잡채기로 마권수를 쓰러트리며 꽃가마를 탔다.

이로써 지난 8월 문경오미자대회에서 백두장사 18회를 달성해 이만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김민재는 이날 우승으로 이 부문 역대 단

독 2위로 올라섰다.

역대 최다인 이태현(백두장사 20회)과의 격차도 한 차례로 좁혔다. 또 천하장사 3회를 포함해 개인 통산 장사 타이틀을 22개로 늘렸다.

기록 달성 속도도 눈에 띈다.

김민재는 울산대 2학년이던 2022년 6월 강릉단오대회에서 생애 첫 백두장사에 오른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19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이만기는 26세에 18번째 백두장사에 올랐지만, 김민재는 24세에 그 기록을 넘어섰다.

이태현과 비교해도 10년은 빠른 셈이다.

1994년 10월 첫 백두장사에 오른 이태현이 19회 우승까지 걸린 기간은 약 15년 8개월이었다. 다만 이태현은 2006년 은퇴 후 종합격투기로 전향했다가 2009년 모래판에 복귀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KIA, 한 시즌 홈 최다 관중 신기록

‘37번째 매진’ 127만8천888명...경기 당 평균 1만7천763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구단 역대 한 시즌 홈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KIA는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 관중 2만500명이 입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즌 37번째 매진을 기록한 KIA는 홈누적 관중 127만8천888명을 달성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천763명이다.

이는 종전 구단 최다 기록인 2024시즌의 125만9천249명을 넘어선 수치다. 당시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천250명이었었다.

KIA가 한 시즌 홈 관중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7년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넘어선 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도 100만 관중을 달성



했다.

홈 경기매진 기록도 새로 쓰고 있다.

KIA는 지난달 5일 KT 위즈전에서 시즌 31번째 매진을 기록하며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을 경신했다. /주홍철 기자



‘V13urning up(2026 HOME FINALE)’

KIA, 오늘 시즌 최종전서 팬 감사 행사

경기후 포스트시즌 출정식

KIA 타이거즈가 12일 LG와의 홈경기에 시즌 최종전 팬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KIA는 3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와 올 시즌 팬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V13urning up(2026 HOME FINALE)’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대한 결의와 팬들과 하나 돼 V13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자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날 경기 전과 중에는 서한국 응원단장의 10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응원전과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한 서한국 응원단장과 144경기를 함께 응원해 준 팬들에 대한 보상으로 중앙출입구 앞 홍보부스에서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커피

차를 운영한다.

입장 관중 전원에게 훈민정음체로 디자인된 ‘최강기아’ 응원 타올을 증정하며, 티켓은 홈피날레 디자인이 적용된 지류티켓이 무작위로 출력된다.

이날 경기의 승리 기원 시구는 서한국 응원단장이 맡는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포스트시즌 진출 출정식이 진행된다.

먼저 시즌 하이라이트 영상이 송출되고, 포스트시즌 엠블럼이 공개된다. 선수단은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뒤 포스트시즌 진출에 대한 각오를 전한다. 이어 전남도립 국악단이 ‘외쳐라 최강기아’ 응원가를 국악 버전 편곡으로 공연하며, DJ와 함께하는 뽕짝이 응원전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